

### 가족과의 생활시 유의사항

# 감염가족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 김경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감염관리실

HIV는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염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막상 가족 중 한 사람이 HIV에 감염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피상적인 정보는 알고 있지만 국을 같이 떠먹고 세탁물을 함께 넣고 빨아도 되는지, 감염된 가족의 식기는 항상 소독을 해두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궁금할 것이다.

HIV 감염인이 되거나 에이즈 환자가 된 경우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인가?' 등의 수많은 질문들과 함께 가족들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걱정들이 앞설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가족 중 HIV 감염인이나 에이즈 환자가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감까지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감의 원인은 에이즈 감염은 죽음과 직결된다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족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HIV 감염인이나 에이즈 환자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에 감염된 사람의 장기를 이식 받음으로써 감염이 가능하며 모체가 HIV에 감염된 경우 어머니로부터 신생아가 출생되면서 수직감염이 가능하다.

HIV는 거의 모든 체액에 존재하며 모든 체액이 항상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게 농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HIV 바이러스는 혈액, 정액, 질분비물, 모유 등에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다. 이외에도 눈물, 타액, 배설물 등에도 HIV가 있으나 농도가 낮아 감염력은 거의 없다. 그러나 혈액이 섞여 있는 체액이라면 HIV가 존재할 수 있다.

HIV는 어떻게 감염되는가? >> HIV는 HIV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접촉을 통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즉,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 질분비물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이외에도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수혈 받거나, 감염된 사람과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HIV

HIV는 어느 정도 강한가? >> HIV는 여러 세균,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쉽게 소독제에 파괴되는 바이러스이다. 또한 열에 약하여 56-60℃ 온도에서 30분 정도면 불활성화 되고, 화학적으로도 불안정하여 0.5% 차아염소산액(10배 희석된 락스), 70% 알코올, 0.3% 과산화수소수 등과 같이 흔히 사용되는 화학소독제로 10분 정



도 처리하면 완전히 감염력을 상실하게 되며 건조된 상태에서는 감염력이 없다.

HIV 노출시 전염 확률은 얼마나 되나? >> HIV에 오염된 주사침에 찔리거나, 칼에 베이는 경우 HIV 감염의 위험성은 0.3%이며 B형 간염의 20-30%에 비하면 감염위험도는 낮다. 감염인과 콘돔없는 성관계시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이다.

HIV는 이러한 경로로 전염되지 않는다. >> HIV는 모기나 기타 곤충에 물려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 모기가 HIV를 퍼뜨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HIV는 인간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연히 접촉하는 것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지고, 껴안고, 키스하고 악수 하는 것, 같은 집에

서 살거나, 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것으로는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HIV가 전염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식기를 쓰고, 의복을 같이 입고, 침대를 같이 쓰는 것, 같은 컵으로 마시는 것, 비누를 같이 사용하는 것, 심지어는 국물을 같이 떠먹는 것도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가족을 격리시킬 필요 없어 >> HIV 감염은 감염인 자신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생활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족 중 한사람이 HIV 감염자 또는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족들도 매우 충격적이겠으나 HIV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하거나 함께 생활하더라도 지나치게 격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HIV가 전파되지 않으므로 신체 접촉을 꺼리거나, 식사를 함께 하지 않거나, 말할 때





튀는 칫을 우려하여 멀리 떨어져 있게 하거나, 혼자 방에 가두거나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의 세탁물도 세제액을 넣고 71℃ 이상에서 25분 동안 세탁할 경우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이 제거되므로 가정에서의 세탁 시에도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세탁물의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세탁을 할 필요가 없다. 71℃ 이상의 물로 25분 동안 세탁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하고, 속옷 등은 삶는 것도 위생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상처난 피부에  
체액이 묻지  
않도록

>> 면도기나, 칫솔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입안이나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 혈액이나, 정액, 질분비물 등이 직접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콘돔을

착용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하도록 하고, 임신 전에는 HIV 감염 예방을 위해 의사와 미리 상담 하도록 한다.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표준주의 Standard precaution 라는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HIV뿐만 아니라 B형 간염, C형 간염 등 혈액 매개 질환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혈액, 체액, 분비물, 기타 오염물질을 만질 때,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여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환자에게 상처가 나서 출혈이 있는 경우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고 거즈로 잘 감싸주고 치료해준다.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에게는 직접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지와 지원은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단순히 HIV 감염자인 것 자체만으로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들이 지나친 거부감을 갖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가 용기를 가지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